

지역 소식통

정읍시, 유기농업 자재
ha당 최대 200만원 지원

정읍시가 '2024년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녹비 작물 종자, 유기농업 자재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권 설정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농지와 일반농산물 재배하는 농지로,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포함)는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지원이 가능하다.

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업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유기인증농지, 무농약인증농지, 일반농지를 순으로 선정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

부안군은 올겨울 한파를 대비해 군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해 동파 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하고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과 조치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상수도시설 동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개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함 내부에 현 옷이나 담요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감싸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한파 또는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어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부관아 복원 공청회 개최

정읍시, 시민·전문가 의견 반영해 내년 1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적인 고부농민봉기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시는 16일 연지아트홀에서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박정원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경희대학교 임형진 교수,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 임승식 도의원,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 동학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종합토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표는 타 지역의 관아 복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복원에 필요한 중보

한 사료 확보, 고부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청과 동문회 등의 원만한 협의, 복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 등이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시설 이전에 따른 절차를 소개하면서 시굴·발굴조사의 연구 활동이 복원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고부관아 복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학교 이전 문제, 예산 확보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정치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고부관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부관아는 동학농민혁명 시적 상징적인 공간"이라면서 "관아를 복원해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복원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니수박 재배기술지원'

고창군농기센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발족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산학연이 총망라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꾸리고 지역농업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은 지역농업 현안문제에 대한 현장실증사업 컨설팅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미니수박'의 재배기술 보급 확산으로 정해졌다. 고창군 미니수박은 생산면적이 전년 대비 176% 증가(2022년 50.8ha→2023년 88.4ha)했고, 6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농기센터 현행열 소장을 단장으로, 미니수박과 관련한 지역 선도농, 농업기술센터, 대학, 관련 기관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고품질 미니수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보급 확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미니수박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원단을 통해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사업 공동 추진, 현장 해결중심 종합시범사업 협력, 생산·가공·유통·마케팅 등 종합 컨설팅,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종합적인 컨설팅과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을 통해 고품질 미니수박 생산산지를 조성하여 '고창수박'의 명성을 있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미니수박 브랜드 육성으로 미니수박 시장을 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형수 고창부군수,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

럼피스킨 관련 "특교세·재난기금 투입 방제차량·소독약제 지원"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관내 럼피스킨 방제 현장을 찾아 소독장비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15일 오후 노형수 부군수는 아산편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소 럼피스킨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 고창군은 현재까지 지역내 소 럼피스킨 확진 9건이 집중되며 최고단계의 가축전염병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노형수 부군수는 "평생을 키워온 소들을 하루아침에 물게 되는 가슴아픈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역 축산업을 지켜내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날 소 럼피스킨 방제에 특별교부세와 재난기금 투입을 결정, 전염병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파리 등 흡혈 곤충을 차단하고 농가들에 소



독약품과 살충제 등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14개 읍·면에는 공동차량방제단을 구성해 축사 인근 도로와 하천, 도랑 등등이 퇴비사 등에 새벽시간과 저물녘에 연무소독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에는 동물용 해충

기피제가 공급되고, 예찰단과 농장전담제(108명)를 운영하고 있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이뤄지는 다음주까지 럼피스킨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대학수학능력시험 청소년 응원캠페인 전개

부안군 교육청소년과(김화순 과장)와 유관기관인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 과 함께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시험장인 부안고등학교와 부안여자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응시자는 총 311명으로 부안고등학교에서 149명,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162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수험생들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핫팩과 간식 식품 전달하며 밝은 미소로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

이날은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경찰서,교육지원청) 및 사회단체, 학부모회 등에서 부안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물품들을 준비하여 수험생 및 청소년들에게 전달 부안군민들의 기운을 가지고 입실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근정장학재단이라는 부안군민, 향유, 부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우리 부안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하며 지자체 최초 반값 등록금을 실시 부안군 수험생이나 청소년들에게 대학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최고의 결과 가져오고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중국 호북성 여행사 대표단 초청 팸투어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1월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호북성 우한시 8개 여행사의 대표단 11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전북 서남권(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관광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방한 단체관광객 재개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팸투어 기간동안 중국 호북성 여행사 대표단은 부안군의 체석강, 청자박물관과 고창의 고인돌박물관, 고창읍성 그리고 정읍의 내장산 국립공원, 무성사원 등 서남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및 세계유산,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호북성 여행사 대표단과 3개시군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관광협력, 관광상품 개발 등을 협의하는 뜻깊은 시간도 보낼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중국 호북성 여행사 대표단의 부안군 방문에 환영의사를 전하며 "이번 팸투어는 부안 정읍, 고창이 협력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무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정읍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잠재된 수산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국비 500만원을 투자해 샘고을시장 상인회와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만 취급하는 22개 점포다.

아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시간 내(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해 구입 영수증과

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해당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명당 은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은 고객 1명이 한 주(월~일요일)에 1회 참여를 기준으로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산물 5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은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주에 한번 씩 2주에 걸쳐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